

홍수·가뭄 대비 '물 통합 관리'

전남도 물관리 용역 착수...수자원 확보·맑은 물 공급 등 집중

전남도가 안정적 수자원 확보 및 맑은 물 공급, 가뭄·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을 위해 '전라남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25일 동부지역본부에서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자문위원으로 김은식 전남대학교 교수, 김종일 전남연구원 박사, 김석규 국립환경과학원 박사, 전남도, 22개 시·군·유역관리 업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7월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해 수자원 확보와 물 공급, 가뭄·홍수 등 재해의 경감 및 예방, 빗물 관리와 물 재이용 촉진 등이 포함된 도 차원의 10년 단위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의 2021년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023년 11월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전남도 통합 물관리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통합물관리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 물관리 여건의 변화와 전망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 및 물의 공급·이용·배분에 관한 사항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빗물 관리 및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적절한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물순환 회복 및 저영양 개발에 관한 사항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수질 개선에 관한 사항 ▲물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등도

포함된다.

이번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물관리(이수·치수·수질개선), 도서 지역의 원활한 맑은 물 공급,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재해 경감 및 예방 등 효율적 물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련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내용이 최우선 검토 대상이며 다양한 물 재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수자원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한 전남도 자체 가뭄·홍수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으로 전남지역 물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빈번해진 가뭄과 홍수로부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 매출액 200억 돌파

착한 소비 캠페인·할인 이벤트·저렴한 중개 수수료 등 효과

전남도는 올해 2주년을 맞은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가 누적매출액 200억원을 돌파했다.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이 공공배달앱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출시한 '떡깨비'는 7월 중순 현재 누적 주문 85만 건, 누적 매출액 209억원을 달성했다. 출시 10개월차였던 지난해 4월 초 기준 누적매출액이 5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5개월만에 3배가 넘는 추가 매출을 달성한 셈이다.

이같은 괄목할만한 성과는 전남도의 착한 소비 동참 캠페인과 다양한 할인 이벤트, 떡깨비의 상생 중개수수료 1.5%가 큰 역할을 했다.

공공배달앱 떡깨비를 사용하면 민간배달앱보다 수수료 절감 비용이 건당 약 3700원 이상 발생한다.

또한 민간배달앱 사용 시 광고와 상위 노출에 추

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떡깨비는 광고와 상위 노출 비용이 무료다.

뿐만 아니라 전남 공공배달앱 떡깨비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가입 후 첫 주문 시 5000원을 할인하는 '첫 주문 할인 이벤트', 가맹점이 설정한 할인 금액에 비례해 최대 4000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더 할인 이벤트',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5% 페이백 이벤트'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1인 4회 5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 할인이벤트'도 추진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대학 진학·미래 설계 선배들과 함께 고민해요"

전남도, 대학선배 멘토링 캠프

오늘까지 워크숍·전문가 특강 등

전남도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남도학숙과 지난 29일 도청 왕인실에서 고교생과 대학생이 서로 소통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2024년 대학 선배 멘토링 캠프' 개최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멘토링 캠프에는 도내 고교생 40명과 남도학숙 대학생 40명이 참가했다. 31일까지 3일간 도청, 나주, 서울 일대에서 진행된다.

개회식에 참여한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대학 진학과 미래 설계로 고민이 많은 고학 후배들에게 멘토들이 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멘토-멘티가 함께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개회식 이후 나주로 이동, 한국전력 공사를 방문해 실제 업무현장을 둘러보며 직원



들의 업무 환경과 일하는 방식을 경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캠프 기간 멘토링 워크숍, 진로 전문가 특강, 대학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특히 남도학숙 대학생들이 멘토로서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학업·진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 도내 고교생들의 대학 생활과 미

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희승 원장은 "캠프가 종료된 후에도 1대 1 멘토링이 지속되도록 지원해 멘토와 멘티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겠다"며 "대학선배 멘토링 캠프가 지역사회 인재들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최선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용 확대 협의회서 개선 사항 등 공유

전남도가 지난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교육청, 시군, 공급업체, 영양교사와 함께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용 확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고품질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개발·보급한 식재료 전문 조달시스템으로 ▲학교-공급업체 간 식재료 수발주 거래 ▲지자체 보조금 관리 ▲통계관리 ▲정산 전산화 등 친환경 식재료 공급부터 검수까지 업무를 일괄처리하는 방식이다. 현재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친환경 식재료 지원은 시·군별 개별시스템을 사용해 통계관리 및 수발주 거래를 자체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친환경 식재료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해 2023년부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시범 도입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시범 도입된 시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시스템 개선 요청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새로 개발한 기능을 설명하는 한편 내년도 시스템 사용 확대를 위해 시·군, 공급업체, 학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방법과 시스템을 개선해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용을 확대하겠다"며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무상 학교급식(1204억원)과 별개로 337억원을 추가 투입해 2261개교 22만8000명의 학생에게 친환경농산물 및 유전자 변형 없는 식품(Non-GMO)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그랜드 전남 실현...첨단전략산업 시책 발굴 나서

전남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남도가 지난 25일 이차전지, 우주항공, 바이오, 친환경 조선 등 산업별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전략산업 분야 시책 발굴을 위해 전략산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2025년 추진을 목표로 전남도에 서 발굴한 전략산업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민선8기 그랜드 전남을 실현할 혁신적 시책 제안을 중점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국가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 정부사업과 연계한 도청 핵심사업 등 규모 있고 의미있는 시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전남도는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효과성 등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내년도 신규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이 강점을 가진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민선8기 그랜드전남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앞으로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하고 정부사업과 연계한 대형 프로젝트 등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휴가철 물놀이 시설 수질 검사 실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9월까지 감염병 예방 나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원장 안양준)은 여름 휴가철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과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물놀이시설 수질검사를 9월까지 3개월간 집중 실시한다.

전남지역 물놀이시설은 수경시설 130개소, 유기사설 23개소다.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를 이용한 인공시설물(바닥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이 사람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시설이다. 유기사설은 물놀이형 오락 놀이 및 기구 시설이다. 수경시설 수질검사는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유기사설은 과망간산칼륨을 추가해 5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난해 물놀이시설 수질검사는 총 88건으로 14건이 기준 초과했다. 주요 기준초과항목은 유리잔류염소 항목이었다. 유리잔류염소란 물 속에 잔류하는 염소 성분으로 수질기준은 0.4~4.0mg/L다.

유리잔류염소가 고농도인 경우 피부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기준보다 낮은 농도에서는 유해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어 적절한 염소소독이 필요하다.

수질검사 성적서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물놀이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시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검사 후 기준에 적합하면 재개방할 수 있다.

박혜영 전남도 수질분석과장은 "여름철 특히 유아 및 어린 아동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기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질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